

##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문화적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  
With a Focus on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박수경(Park, Su Kyung)<sup>1)</sup>

안선희(Ahn, Sun Hee)<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variables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The selected variables were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105 mothers who had defected from North Korea with preschool children living in Seoul, Gwangmyeong-si, and Gyeongsangnam-do provinces.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had meaningfully positive effects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However, marginalization was found to be a predictor of competence-anxiety in parenting. The selected variables derived from the environmental systems in maternal parenting were significant factors in the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and furthermore, their sociocultural environments were also important in parenting. These findings clearly showed that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wer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of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ppear to

\* 본 논문은 2013년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sup>1)</sup> 아이빔어린이집 대표원장

<sup>2)</sup>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 Hee Ah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E-mail : shahn@khu.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have a great deal of utility as preliminary data to improve the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Keywords** : 북한이탈 어머니(North Korean refugee mothers),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문화적응(accluturaion).

## I. 서론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06년부터는 매년 2,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꾸준히 입국하고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4). 2014년 3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총수는 잠정적으로 26,483명으로 추산되는데(Ministry of Unification, 2014), 최근 이들의 입국 관련 특징은 여성 입국자수의 급증과 가족단위 또는 부부동반 입국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입국비율이 남성을 추월하여 2014년도에는 8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 12월 집계에서 총 입국자수 대비 20대와 30대의 여성 비율이 72%를 차지하면서 여성의 비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이러한 연령대의 증가는 생애주기 상 결혼으로 인한 가정형성으로 자녀양육을 수행해야 하는 어머니의 증가를 의미한다(Park & Kang, 2012). 특히 발달 상 결정적 시기에 놓인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 어머니의 경우 이주로 인한 이들의 변화된 양육환경이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요한 사안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북한이탈여성의 생활 및 양육실태조사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경제적 빈곤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탈제도적 이주로 인한 신변 불안과 적응 및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등 부모로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 Lee, 2009; Lee, Kim, & Kim, 2012; Lee, Park, Park, & Park, 2010;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2011). 실제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을 살펴본 연구에서,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적대적으로 훈육하거나 무시하는 등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0). 또한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적 고충과 출신 사회와 상이한 사회·문화적 환경은 이들의 자녀양육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들 또한 어머니와 동일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래친구와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적응 등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ang & Lee, 2009). 이러한 북한이탈 어머니의 불안정한 양육환경과 경제적 빈곤은 어머니 자신의 심리 및 정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Duncan & Brooks-Gunn, 2000; Lee et al., 2010). 따라서 자녀의 발달과업에 있어서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의 발달과 자녀의 사회적응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부모로서 자신의 양육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능력과 자신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당면한 자녀양육 문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 어머니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제공할 수 있는 어머니의 인지적인 측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양육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감인 양육효능감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양육 변인으로 요구된다.

양육효능감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서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자녀양육에 있어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을 조명하면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보다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1). 이 같은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은 저소득층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Ahn, Kwon, & Park, 2012), 이는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유아교육기관 적응력과 사회 적응력이 높았다는 연구결과(Jackson, Choi, & Bentler, 2009)를 볼 때, 양육효능감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 적응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양육효능감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점적으로 조명되고 있는데,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e, Lee, Kim, Kim, Kim, & Kim, 2010; Kim, 2008; Kim, 2009). 이러한 결과들은 양육효능감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능과 효과

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양육효능감은 북한이탈 어머니들이 처한 불안정한 양육환경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연구대상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탈 어머니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양육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간호학 분야에서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외상 후 스트레스 등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가 있으나 이마저도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을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여 살펴보지는 않았다(Lee et al., 2010). 그러나 발달 시기에 있어 유아기 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양육 지원은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의 지원에 앞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녀양육에 대처할 수 있는 어머니 개인의 양육적 자신감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 같은 연구 관점에 기초해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탈 어머니의 경우 이들의 이주민적 지위와 탈제도적 이동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들을 주요 변인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양육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주요 변인들을 다차원적 환경체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북한이탈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정의 경제적 지표가 되는 소득의 경우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ung, Kwon, & Lee, 2009).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09). 학력(Kim, 2008)과 어머니의 취업유무(Moon, 1999)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향이 특수한 이주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 어머니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저학력 그리고 각기 다른 한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도 앞서 언급한 환경적인 변인들과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차적인 차원의 양육환경인 북한이탈 어머니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자녀양육이 결혼 생활의 결과로 인한 부부 공동의 과업인 만큼 어머니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양육효능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Kim, 2009; Lim, 2013).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가 경험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자신의 심리적 안녕 및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격 형성 및 발달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0). 특히 Lim(2013)의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이고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의 양육에서 부부 간의 관계 및 협력이 가지는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자녀 양육에 있어 필수

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양육의 주 역할을 맡고 있는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과도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북한이탈 어머니의 경우 이들의 결혼만족도는 일반 가정과 달리 국제결혼이나 남한 정착 이후 재혼이나 사실혼 등으로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부부 동반 입국자의 경우 남한 정착 이후 그 만족의 정도가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이탈 어머니에게 있어 가정환경은 남한 입국 이후 사회적 연결망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주요한 지지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Park & Kang, 2012) 이들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배적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를 주요 변인으로 탐색해 보아야 한다.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봄에 있어 타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 가정과 달리 이들만의 고유한 정부 지원 시스템 및 주거 특성으로 인한 지지적 환경요인이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집단 거주 방식으로 인한 주변 이웃의 지원과 정부기관 및 지역적응센터 등의 다양한 지원은 사회적 지지의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환경적 변인들이다. 이는 양육환경을 구성함에 있어 개인의 주변 환경을 아우르는 지역적 차원의 환경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낮은 환경으로 인한 적응 및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어머니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유용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에 지지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Kim, 2005). 특히 Kim(2009)은 이주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이들

의 자녀양육 질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만의 고유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지지를 영향요인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 어머니의 이주민적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자신들의 출신 사회와는 상이한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을 주요 변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양육환경에 있어 거시적 차원의 환경 체계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북한이탈 어머니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문화적 체제로의 적응을 요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적응이라는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은 자신이 속한 공간 및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변화되는데, 특히 사회·문화적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Bae et al., 2010). 양육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부모의 제반 양육행동은 가족의 사회·문화적 맥락 하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 다양한 인종 간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양육행동의 차이는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is & Toolis, 2010). 미국으로 이주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이들이 겪는 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가정의 자녀양육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Garcia-Coll & Magnuson, 2000; Suarez-Orozco & Suarez-Orozco, 2001). 따라서 문화적응 수준이 낮을 경우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하여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로 이주한 중국계 부모들의 문화적응을 살펴본 최근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양육경험과 양육 기술을 많이 가짐으로써 이들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stigan & Koryzma, 2011). 그러나 북한이탈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화적응의 영향력을 양육효능감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들이 직면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과 이주민적 지위로 인한 문화적응을 주요 변인으로 규명해 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 어머니들에게 내재된 특수한 상황과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을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문화적응을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 전반에 대한 학계 및 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문화적응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경남 지역(창원, 김해, 부산)에 거주하는 유아기 아동(3세~7세)을 둔 북한이탈 어머니들 105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는 자녀의 발달과업에 있어서 유아기가 가장 결정적 시기일 뿐 아니라 이 시기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후 지속적인 저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

육이 중요시되는 유아기 아동을 둔 가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명단 확보나 접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눈덩이 표집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105)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N)	Percentage(%)
Age	In 30s	5	4.7
	Below 30s	56	53.3
	In 40s	41	39.0
	Over 50s	3	2.7
Education	Below a middle school	16	15.2
	A high school	67	63.8
	Over junior college	17	16.2
Job status of husband	Temporary employment	53	50.4
	Service job	16	15.2
	Office job	18	17.1
	Etc.	3	2.9
A native place of husband	North Korea	55	52.0
	China	35	33.0
	South Korea	16	15.0
Marital status	First marriage	45	43.0
	Second marriage	55	52.0
Occupation	Housewife	69	65.7
	Occupied	33	31.4
Numbers of children	One	44	41.9
	Over one	60	57.1
Monthly income of a household	Below 1 million won	15	14.3
	In the 1 - 2 million won	43	41.0
	Over 2 million won	37	35.2
Duration of settlement	Below 1 - 3 years	34	32.4
	Below 3 - 6 years	45	42.9
	Over 6 years	24	22.9
Children education institute	Using	84	80.0
	Unusing	2	2.0

Note. Case numbers of each item are different by the nonresponse.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북한이탈 어머니의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번안 및 수정한 Shin(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로서의 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Efficacy area: PSCE)을 측정하는 인지적 차원과 부모로서의 좌절감 및 불안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Anxiety area: PSCA)을 측정하는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부모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예를 들어,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개 문항인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부모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역할에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그리고 부모불안감은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불안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양육효능감 총점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부모불안감 문항은 모두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0이며 하위요인인 부모효능감은 .76, 부모불안감은 .65로 확인되었다.

### 2) 결혼만족도

북한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owers와 Olson(1993)이 개발한 ENRICH (Evaluation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의 하위척도인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을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결혼 생활의 주 영역인 배우자의 성격적 특성, 의사소통, 의사결정 및 갈등해결, 자녀양육,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로서의 역할관계 등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문항별 내용은 '나는 남편의 성격적인 특성과 개인적인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나의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등이다. 전체 문항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6이었다.

###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 등 (Zimet, Dahlem, Zime, & Farley, 1988)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를 Kim(2008)이 재구성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Kim(2008)의 도구는 원 도구의 '친구' 요인을 확장하여 친구를 한국친구와 본국친구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수정된 Kim(2008)의 도구는 가족, 본국친구, 한국친구, 의미 있는 타자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주로 정부 산하의 기관이나 종교 및 복지단체의 단체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의미 있는 타자' 요인을 보다 확장하여 '사회단체'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나는 상황이 어려울 때 주로 한국친구들에게

의지한다’, ‘나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같은 국적의 친구들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평정토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7이며 하위요인인 가족의 신뢰도 계수는 .93, 본국친구는 .90, 한국친구는 .87, 사회단체는 .90으로 확인되었다.

#### 4) 문화적응

북한이탈 어머니의 문화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rry(2001)의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미국으로 이주한 아시아계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적응 척도로서 이주민의 문화적 동화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본 척도는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등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변화’ 요인은 자신의 고유문화 정체성은 물론 한국문화의 정체성 또한 낮은 상태를 말하며, ‘분리’ 요인은 한국문화 정체성은 낮으나 고유문화 정체성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화’ 요인은 한국문화 정체성은 매우 높으나 고유문화 정체성은 낮음을 의미하며, ‘통합’ 요인은 한국문화와 고유문화의 정체성 모두 높음을 말한다. 각 문항은 ‘나는 북한 출신 사람들보다 남한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 ‘나는 북한 출신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 모두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느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척도로 구성된 Barry(2001)의 도구를 본 연구에서는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6이며 하위요인인 통합의 신뢰도 계수는 .70, 동화는 .75, 분리는 .74, 주변화는 .78로 확인되었다.

### 3. 자료수집

설문 문항에 포함된 용어 및 문장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이탈 어머니와 북한이탈주민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서울 및 경상남도에 소재한 지역적응센터 및 통일희망봉사단을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동의를 받은 이후 본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박람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 동의를 구한 후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는 철저히 무기명으로 진행되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연구자가 직접 북한이탈 어머니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경남 지역인 창원, 김해, 그리고 부산 지역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박람회를 주관하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문을 의뢰한 후 우편으로 수거하였다. 회수 시 응답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해 응답한 설문지는 설문 봉투에 부착된 테이프를 이용해 밀봉된 상태로 수거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연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초등학생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그리고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되는 설문지는 제외하여 총 130부 중 10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과 문화적응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등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북한이탈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느 변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계수와 분산팽창계수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를 확인하였다.

### Ⅲ. 결과분석

#### 1.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먼저 북한이탈 어머니의 문화적응은 하위요인별로 통합의 평균이 3.24, 동화는 2.78, 분리가 2.84, 주변화는 2.50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의 하위요인 중에서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고유문화인 북한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정착 사회의 문화인 남한문화에 대한 수용에도 적극적인 통합의 평균이 가장 높고 두 문화 모두에 대한 정체성이 낮은 주변화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문화적응 수준이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남한문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105)

	Variables	M	SD	Range
Acculturation	Intergration	3.24	.61	1~5
	Assimilation	2.78	.56	
	Seperation	2.84	.66	
	Marginalization	2.50	.55	
Social support	Family	3.62	1.16	1~5
	A North Korean friend	3.40	.87	
	A South Korean friend	2.63	.89	
	A social organization	2.83	.94	
	Total	3.12	.59	
Marital satisfaction		3.27	.53	1~5
Parenting efficacy	PSCE <sup>1)</sup>	3.20	.42	1~5
	PSCA <sup>2)</sup>	2.87	.70	
	Total	3.18		

1) PSC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Efficacy area

2) PSCA: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Anxiety area

화를 수용하는 단계로 진전 중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12이고, 하위요인별로는 가족의 평균이 3.62, 본국친구는 3.40, 한국친구가 2.63, 사회단체는 2.83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 어머니들이 남한 사회에서 대체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지원이 자신의 가족과 본국출신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결혼만족도의 평균이 3.27로 나타나 북한이탈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다소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18로 확인되어 자녀 양육에 있어 효능감을 다소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효능감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북한이탈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 유무, 자녀 수, 월평균수입, 그리고 남한 정착기

<Table 3> Differences in parenting efficacy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Variables	PSCE	PSCA	Total	Scheffe	
	M(SD)	M(SD)	M(SD)		
Age	Below 30s(n = 61)	37.96( .69)	12.02(.37)	49.95(.74)	
	Over 40s(n =44)	39.30( .78)	10.68(.42)	52.61(.84)	
	<i>t</i>	1.62	5.66*	5.69*	
Education	Below a middle school(n = 16)	37.69(1.28)	12.81(.70)	48.88(1.38)	
	Over a high school(n = 84)	38.83( .56)	11.19(.30)	51.64(.60)	
	<i>t</i>	.81	-2.13*	1.83	
Occupation	Housewife(n = 69)	39.10( .62)	11.64( .34)	51.46( .68)	
	Occupied(n = 33)	37.27( .89)	11.09( .50)	50.18( .98)	
	<i>t</i>	-1.68	-.90	-1.07	
Numbers of children	One(n = 44)	37.86( .77)	11.84( .11)	50.02( .84)	
	Over two(n =60)	38.88( .66)	11.20( .09)	51.68( .72)	
	<i>t</i>	1.00	-1.13	1.49	
Monthly income of a household	Below 1 million won(n = 15) <sup>a</sup>	37.80( .80)	13.47( .68)	48.33(1.45)	c > b
	Below 2 million won(n = 43) <sup>b</sup>	38.65( .65)	11.63( .40)	51.02( .85)	
	Over 2 million won(n = 37) <sup>c</sup>	38.77( .87)	10.06( .43)	52.59( .92)	
	<i>F</i>	.18	8.78***	3.12*	
Duration of settlement	Below 1~3 years(n = 34) <sup>a</sup>	38.24( .87)	12.53( .45)	49.71( .97)	c > b
	Below 3~6 years(n = 45) <sup>b</sup>	51.69( .76)	11.78( .39)	51.69(1.28)	
	Over 6 years(n = 24) <sup>c</sup>	51.46(1.04)	9.33( .53)	51.46(1.50)	
	<i>F</i>	2.19	11.15***	1.31	

\**p* < .05. \*\*\**p* < .001.

간을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북한이탈 어머니의 연령은 하위요인인 부모불안감( $t = 5.66, p < .05$ )과 양육효능감( $t = 5.69, p < .05$ )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참조).

즉, 30대 이하의 연령인 어머니가 자녀양육 시 더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도 부모불안감 요인( $t = -2.13, p < .05$ )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불안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월평균 수입도 하위요인인 부모불안감( $F = 8.78, p < .001$ )과 전체( $F = 3.12,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수입이 적을수록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후검증 결과,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남한 정착기간의 경우,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부모불안감( $F = 11.15,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한 정착기간이 짧을수록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 전체만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증을 한 결과, 6년 이상의 정착기간을 가진 집단에서 양육효능감이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문화적응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양육효능감에 대한 회귀분석에 앞서 북한이탈 어머니의 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

하였다(Table 4 참조).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봄에 있어, 먼저 문화적응 변인이 다른 독립변인과 갖는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r = .27, p < .01$ )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4, p < .05$ ). 사회적 지지( $r = .41, p < .01$ ), 결혼만족도( $r = .40, p < .01$ ), 문화적응( $r = .23, p < .05$ )의 순으로 양육효능감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효능감에 있어서도 사회적 지지( $r = .42, p < .01$ )와 결혼만족도( $r = .45, p < .01$ )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불안감에 있어서는 문화적응( $r = -.35, p < .01$ )만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양육효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문화적응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령, 학력, 남한 정착기간,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통제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의 Durbin-Watson 계수는 1.92로 확인되었으며, 공차계수와 VIF 계수도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F = 5.95, p < .001$ ), 선정된 독립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38%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Table 5 참조).

먼저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Model 1에서는 관련 변인들이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 105)

	a	b	c	d	e	f	g	h	i	j	k	l	m	n
a	-	.37**	.08	.01	.05	.24*	.27**	.00	.21*	-.23*	.08	.45**	.00	.40**
b		-	-.12	.37**	.36**	.73**	.23*	.02	.01	-.22*	.15	.37**	-.01	.35**
c			-	-.06	-.04	.26**	.16	-.15	.36**	-.06	-.12	.23*	.06	.17
d				-	.37**	.68**	.37**	.35**	-.49**	-.36**	.55**	.17	-.15	.24*
e					-	.70**	.15	-.11	-.08	-.15	.09	.22*	-.03	.21*
f						-	.38**	.04	-.07	-.33**	.27**	.42**	-.05	.41**
g							-	.53**	-.28**	-.44**	.72**	.17	-.27**	.30**
h								-	-.47**	-.11	.71**	-.03	-.06	.00
i									-	.42**	-.77**	.15	.26**	.00
j										-	-.70**	-.22*	.41**	-.41**
k											-	.06	-.35**	.23*
l												-	.09	.86**
m													-	-.41**
n														-

\* $p < .05$ . \*\* $p < .01$ . Case numbers of each item are different by the nonresponse.

(a = Marital satisfaction, b = Family, c = A North Korean friend, d = A South Korean friend, e = A social organization, f = Social support, g = Intergration, h = Assimilation, I = Separation, j = Marginalization, k = Acculturation, l = PSCE, m = PSCA, n = Parenting efficacy)

<Table 5>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n parenting efficacy (N = 86)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Control variables	Age	1.85	.16	.55	.04	
	Education	1.52	.09	.16	.01	
	Monthly income	1.76	.21	.48	.05	
	Duration of settlement	-.61	-.08	-.12	-.01	
Independent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27	.26*	
	Social support			.18	.25*	
	Acculturation	Intergration			.14	.07
		Assimilation			.01	.01
		Separation			.17	.14
		Marginalization			-.27	-.23
		$R^2$	.08		.38	
	$\Delta R^2$				.30	
	F	1.89			5.95***	

\* $p < .05$ . \*\*\* $p < .001$ .

<Table 6>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n PSCA (N = 86)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Control variables	Age	-.71	-.12	-.73	-.13
	Education	-.36	-.04	-.22	-.02
	Monthly income	-.92	-.22*	-.62	-.15
	Duration of settlement	-1.14	-.30**	-1.02	-.26*
Independent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07	.15
	Social support			.03	.10
	Intergration			-.16	-.18
	Assimilation			.04	.08
	Separation			-.06	-.11
	Marginalization			.18	.30*
$R^2$		.25		.35	
$\Delta R^2$				.10	
F		6.97***		1.95†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인들을 투입한 Model 2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변인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확인되었다. 반면 문화적응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결혼만족도( $\beta = .26, p < .05$ )와 사회적 지지( $\beta = .25, p < .01$ )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의 영향력은 거의 동일하였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부모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해보았다(Table 6 참조).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의 Durbin-Watson 계수는 1.90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차계수와 VIF 계수도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F = 1.95, p = .08$ ), 선정된 독립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부모불안감을 35%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Model 1에서는 월평균 수입( $\beta = -.22, p < .05$ )과 남한 정착기간( $\beta = -.30, p < .01$ )이 부모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들을 투입한 Model 2에서는 남한 정착기간( $\beta = -.26, p < .05$ )과 문

<Table 7>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n PSCE (N = 86)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Control variables	Age	1.14	.10	-.17	-.01	
	Education	1.16	.07	-.06	-.00	
	Monthly income	.83	.10	-.14	-.01	
	Duration of settlement	-1.75	-.24	-1.14	-.16	
Marital satisfaction				.34	.36**	
Social support				.22	.33**	
Independent variables	Intergration				-.02	-.01
	Assilmilation				.05	.04
	Accultration	Separation			.10	.09
		Marginalization			-.09	-.08
$R^2$		.05		.37		
$\Delta R^2$				.32		
F		1.13		6.33***		

\*\* $p < .01$ . \*\*\* $p < .001$ .

화적응의 주변화 변인( $\beta = .30, p < .05$ )만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부모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주변화를 제외한 문화적응의 하위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남한 사회 정착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부모불안감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부모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변화( $\beta = .30, p < .05$ )와 남한 정착기간( $\beta = -.26, p < .05$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odel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월평균 수입은 Model 2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Table 7 참조).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의 Durbin-Watson 계수는 1.90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차계수와 VIF 계수도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F = 6.33, p < .001$ ), 선정된 독립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37%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 한 Model 1에서는 관련 변인들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인들을 투입한 Model 2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변인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로 확인되었다. 반면 문화적응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결혼만족도( $\beta = .36, p < .01$ )와 사회적 지지( $\beta = .33, p < .01$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이다.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도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Kim, 2009),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hung et al., 2009; Yang & Choi, 2011). 따라서 북한이탈 어머니들 또한 동일한 자녀양육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양육효능감에 있어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차이검증에서 연령 및 월평균 수입과 더불어 북한이탈 어머니의 학

력과 남한사회 정착기간이 부모불안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남한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양육에 있어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한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선순환을 낳게 된다. 따라서 학력 변인은 양육효능감에 있어 주요한 개인적인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사회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경험과 지식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또한 확장되므로 양육적 능력과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09).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조사 결과, 북한이탈 어머니들은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를 보다 유창하게 구사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교육과 적응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사회적 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 Lee, 2009). 이러한 정착기간에 따른 양육자원의 축적 및 확장은 북한이탈 어머니에게 있어 자녀양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목적인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문화적응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육효능감과 상관이 있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델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 선정된 결혼만

족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문화적응의 하위요인인 주변화 변인이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나 사회적 지지와 달리 문화적응은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부모불안감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북한이탈 어머니들이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높아지며 문화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불안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어머니일수록, 주변의 다양한 지지원을 확보한 어머니일수록 그리고 남한 사회 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사회·문화적 환경 하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북한이탈 어머니일지라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다양한 지지체계로부터의 도움 그리고 문화적응이 양육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변인들 중, 유의한 상관이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3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설명력이 높은 결혼만족도의 경우, 가정의 재정 형편이나 시댁과의 관계는 물론 특히 남편과의 관계 및 부부로서의 역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북한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에 있어 남편이 주요한 역할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이주민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탈제도적 이동으로 인해 혈연 및 친인척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의 근거환경이자 자녀양육 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양육의 일차적인 환경인 가정

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 어머니들이 사실혼이나 동거 또는 재혼의 형태로 다시 가정을 형성하는 이유가 어머니 자신의 외로움 해소는 물론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행복을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2011). 이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양육환경에 있어 미시적 차원의 가정 환경적 요인이 가지는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 역시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 변인을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연관 지어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녀양육에 있어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elsky, 1984; Kim, 2009; Lee, 2011).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주변에서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지원이 있다면 이들의 양육효능감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과 본국친구 그리고 한국친구와 사회단체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응 변인의 경우 양육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Kim, 2008; Kim, 2009),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문화적응 변인간의 높은 상관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



어머니의 학력과 수입 그리고 남한 정착기간이 문화적응 변인과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에서 거시적 체계에 속한 문화적응 변인보다는 미시적 체계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보다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환경체계로 기능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ackson et al., 2009; Yang & Choi, 2011). 따라서 이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문화적응과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문화적응 변인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문화적응 수준을 살펴 보았을 때, 북한이탈 어머니가 보인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문화적응은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새로운 문화에서의 양육 전략을 잘 받아들이고 성공적인 양육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2011; Costigan & Koryzma, 2011). 또한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은 이주 사회의 양육 자원에 대한 부모의 접근성을 높여 양육효능감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북한이탈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으로서는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만한 양육자원이나 지식을 충분히 습득했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문화적응 변인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서울시 북한이탈여성의 실태조사에서 문화변인이 아동의 사회적응에 있어 위험요인이자 보호요인인 것으로 보고된 바(Jang & Lee,

2009), 문화적응 변인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이주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알아본 일부 연구에서도 이주부모들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Kim & Pohner, 2002)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비록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규명에 있어서는 문화적응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할 수는 없었으나 아동의 적응 및 양육효능감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문화적응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결혼만족도와 더불어 주위의 사회적 지원 및 문화적응 수준을 높임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 어머니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탈제도적 이동으로 인한 불안정한 양육환경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필요와 실태에 기반한 지원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지속적인 부부 상담과 부모교육을 통해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결혼생활을 개선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교류의 장을 마련해 이들이 다양한 지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이탈 어머니 또한 문화적응의 대상이며 이들의 문화 적응적 과제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올바른 문화인식 제고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의 양육효능감과 이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증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들의 자녀양

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의도적 표집으로 대상이 선정되었으나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주요 도시들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북한이탈 어머니들 대부분을 표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Ahn, S. H., Kwon, H. K., & Park, S. K. (2012). The impact of a husband's cooperation, mother-teacher partnerships, and other social support for on the mother's child rearing behaviors of in low-income famil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4), 231-252.
- Bae, K. E., Lee, K. H., Kim, Y. H., Kim, S., Kim, H. K., & Kim, J. H. (2010).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of marriage-immigrant wom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3), 175-183.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Costigan, C. L., & Koryzma, C. M. (2011).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mong immigrant Chinese parents: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183-196.
- Chung, M. R., Kwon, J. Y., & Lee, M. J. (2009). The comparison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social competence, and parental self-efficacy by their family incom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6), 359-378.
- Chung, S. J. (2011). Parenting efficacy and the health-promoting behaviors for the infants and toddlers of the mothers from Korean and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Duncan, G. J., &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Fowers, B. J., & Olson, D. H. (1993). ENRICH Marital Satisfaction Scale: A brief research and clinical too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2), 176-185.
- Garcia-Coll, C. T., & Magnuson, K. (2000). Cultural differences as sources of developmental vulnerabilities and resources: A view from developmental research.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94-11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Toronto.
- Hawkins, J. L. (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0, 647-648.
- Jackson, A., Choi, J. K., & Bentler, P. (2009).

- Parenting efficacy and the early school adjustment of poor and near-poor black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30(10), 1339-1355.
- Jang, M. S., & Lee, A. R. (2009).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supporting policy of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Seoul*. Seoul: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Kim, D. H. (2008). Study of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K. (2009). The influ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perception of the culture gap, and cultural adaptation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on parenting efficac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5), 229-254.
- Kim, J. H. (2011). The effect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life-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5), 49-57.
- Kim, K., & Pohner, R. P. (2002).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volvement in schooling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e Psychology*, 4(1), 91-115.
- Kim, N. S. (2009). The effects of mother's stress,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 rearing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O.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satisfaction and respondent characteristics shown on kinetic family drawing (KFD) of women migrants to Korean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 Lee, H. S. (2011). Relationship of the cultural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of mothers to children's resilience and 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Busan, Korea.
- Lee, I. S., Park, H. R., Park, H. J., & Park, Y. H. (2010).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adaptation stres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mother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4), 360-368.
- Lee, S. M., & Kim, H. J. (2005).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social report, parenting efficacy and aspirations for their child's attain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 17-33.
- Lee, Y. J., Lee, J. R., & Kim, K. M. (2012). An investigation of potential policy measures to support children of North Korean migrants. Research 2012-14,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Lim, H. S. (2013).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marriag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parenting efficac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f the mother with younger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Ministry of Unification (2014). *Changes in an entry*

- of North Korean refugees*.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 Moon, H. J. (1999). The influence of working moth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on the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6), 1-11.
-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2011). *2011 An analysis re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for the living conditions*. Seoul: North Korea Refugees Foundation.
- Park, J. R., & Kang, D. W. (2012). A study on the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With a focus on changes to individual levels of acculturation in a migration process. *Social Science Studies*, 35(2), 39-63.
- Suarez-Orozco, C., & Suarez-Orozco, M. (2001). *Children of immigr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eis, R., & Toolis, E. E. (2010). Parenting across cultural contexts in the USA: Assessing parenting behavior in an ethnically and socioeconomically diverse sampl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7), 849-867.
- Yang, E. H., & Choi, H. S.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self-efficacy of preschooler mot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6), 211-230.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Received May 30, 2014

Revision received July 21, 2014

Accepted August 11, 2014